

7년 전, 삶의 회오리바람이었을까. 제 2의 또 다른 정착이었을까. 내 인생 오십팔 페이지에 낯설고 어설플 화포리라는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왔다.

내 고향은 원래 송정리였지만, 여러 가지 아픈 추억을 간직한 그곳에 가 살기엔 너무 내 인생의 아픔이 컸기에 나는 모든 이유를 대면서 이곳에 등지를 틀었다.

낯설고 어설플 화포리로 이사

그러나 시작부터 시행착오였다. 새 집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지출되고, 생애 한번도 생각해본지 못했던 펜션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동네 마을분들과의 문화적 이질감은 견딜 수가 없었다. 네 땅, 내 땅 하면서 여유로움 없이 모두 자기 주장에 양보가 없었던 상황에 나는 고립된 섬에 갇혀있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다.

때로는 불면에 시달리면서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후회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될까?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나는 자유분방하고, 사고(思考)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역의 전통과 관습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삶은 서로 소통함으로 행복하다는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지난 주 토요일 화포리 노인회에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간곡히 간청하여 내 동생이랑 동행하였다. 아, 그런데 웬일인가. 내 동생에게 동네 어른들은 엄마처럼, 언니처럼,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주고, 배려해 주고, 정말로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아껴주었다. 나는 마음속 깊숙이 숨어 있는 내 편

남숙희 칼럼

시인



견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화포리 마을 사람들 마음 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화포리 사람들의 깊은 사랑의 강물

그렇다. 과거 속에서 삶을 반추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속에서, 환경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를 생각해 보자.

화포리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이다. 고성군 3만여명이 또한 대가족이다. 이제는 아름다운 화음(和音)을 내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목청껏 소리치자. 오늘 아침엔 겨울처럼 눈이 내렸다. 휘파람불어 화진포 호숫가를 걷고 싶다. 머지않아 진달래꽃이 화사하게 필 것이다. 살아있음이 축복이며, 이 고향에서 살고 있음이 축복임을 감사한다.

우리는 하나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 낙찰계 불입금 다 받지 못하고 계가 깨진 경우



문) 저는 지인인 갑의 권유로 갑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는데, 위 낙찰계의 다른 계원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교류도 없던 중 계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위 불입금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그 차액을 계주였던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給付物)

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부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 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

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 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가입한 낙찰계의 법률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하는 어려우나, 위 낙찰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

2조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갑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수 법률칼럼위원 약력

-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박형수 법률사무소 대표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우신시스템(017370)

지난 한 달 보름간 조정을 받은 시장이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아직 일본 원전 사태나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치적 불안이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미 지난간 일들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인들은 연일 현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이는 기존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

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전기전자 낙폭과대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을 이끈 것은 기존 주도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종목별 차별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즉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등이고 업종 순환도 짝아서 종목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반등은 실적 시즌과 겹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중소형 실적 우량주들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는 점이다. 분명히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한 상승을 보이는 우량주와 그 관련 중소형주들은 실적이라는 배경과 함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 중소형주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은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 중 한 종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우신시스템(017370)템이다. 동사는 차체부품 및 설비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동사는 1년 이상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사의 차체사업이 2010년 2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고 이를 한국 GM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GM의 공격적인 신차 마케팅과 판매 전략은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 신장과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GM의 투자계획(3년간 6조 원)과 올해

출시되는 신차 물량에서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배경이 실제로?동사의 재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꾸준한?매출액과 영업이익?증가 추세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동사의 주가는 지난 1년 이상의 횡보 흐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두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실질적인 수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익 개선은 분명히 동사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